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14강 평지에 풍파를 일으킨 부처님

이제 그만 남 쫓아가지 말고 <금강경>도 덮고, 제 허접한 사설도 그만 읽으라는 권유에 좀 황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부도 그만 그 파격적 노래를 그칠 일인데, 아직 노파심이 남았나 봅니다.

혼돈(混沌)을 배우라니? 6. [-], 相隨來也。一，破二成三從此出。乾坤混沌未分前。以是一生參學畢。 7. [時], 如魚飲水冷暖自知。時時。清風明月鎖相隨。桃紅李白薔薇紫。問著東君自不知。 8. [佛] 無面目說是非漢。小名悉達。長號釋迦。度人無數。攝伏群邪。若言他是佛。自己卻成魔。只把一枝無孔笛。爲君吹起太平歌。 9. [在]. 客來須看也。不得放過。隨後便打。獨坐一爐香。金文兩兩行。可憐車馬客。門外任他忙。 호휴와 속도를 살려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보았습니다. 6. [-]이라, 서로 따라 오느구나. 일(-)이여, 일이어, 둘로 부서지고 셋이 되는 것도 다 이로부터 비롯된다. 천지가 갈라지

전의 우주적 혼돈, 이로 하여 일생의 공부를 마쳤다. 7. [時]라, 물고기가 물을 마셔, 차고 따뜻한 물을 스스로 알듯... 시(時)라, 시(時)라. 청풍과 명월이 서로를 따른다. 복숭아는 붉고 오얏은 희고, 장미는 자줏빛이다. 조물(造物)의 자연에 물어보니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른다 한다. 8. [佛]이여, 뜬금없이 시비를 논하는 이여, 그의 어릴 때 이름은 시달타요, 자라서는 석가라. 사람을 구제하기 무수하고, 여러 죄악을 굴복시킨 이. 그러나 그가 스스로 부처라 한다면, 바로 마군으로 변하고 말아. 다만 구멍 없는 피리 하나 들고 그대 위해 태평가를 부르리라. 9. [在]라, 객이 오거든 꼭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도 보내서도 안 되고, 뒤따라가다 맞는다... 홀로 앉아 화로에 향불 하나 피워놓고, 경전 두어 줄을 읊으니, 가련타, 수레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이들이여, 문밖이 소란스러워도 그래도 그냥 들 밖에... 2부 14강 평지에 풍파를 일으킨 부처님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6. [-]이라, '하나'가 무엇입니까. 옛적

조주선사의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 화두는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나." 대학 시절, 학교 작파하고 천지를 방랑하던 시절, 대구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제가 손가락 하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자,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뭐 하나?" "이거 '하나'를 알면, 세계의 비밀을 알 것이라고 하는데... 글썽 아무런 보아도 모르

결된 공체제 의식 안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가족 안에서 '하나'입니다. 풍한 조각도 나누어 먹고, 부모형제의 안위와 행복을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중 분가해서 뿔뿔이 흩어지면 그 '하나' 의식은 약해지고, 섬뜩한 일들도 쌓이곤 합니다. 세상의 분열과 갈등은 이렇게 '하나'로부터, 둘, 그리고 셋으로 분화해 나간 결과입니다. 불교는 그 분열로 인한 소모와 갈등을 풀이켜 본래의 '하나'로 돌아오라고 손

여, 다시 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가는 그 거대한 섭리의 '이성'에다가, 우리는 토를 달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지." 약이라고 생각한 일들, 없어져야 좋겠다고 생각한 일들이 자연 전체의 이성에는 필요하고 합당하다는 역(逆)의 발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장지는 풍은 거름으로 다시 회귀하고, 죽음이 있어 삶이 있다는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지 않습니까. 노자는

"시(時)라, 시(時)라. 청풍과 명월이 서로를 따른다. 복숭아는 붉고 오얏은 희고, 장미는 자줏빛! 조물(造物)의 자연에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 한다."

평지에 풍파(風波)를 일으킨 부처님 8. 그럼, 대체 부처님은 여기 왜 오신 것입니까. 모든 것이 자기 때를 알아, 우주가 한 점 흠도 부족도 없이 완전한데, 대체 부처님은 왜 오셔서서 평지(平地)에 풍파(風波)를, 야부의 표현을 빌리면, "바람도 없는데, 파도를 일으키는(無風起浪)" 것이냐 말입니다. 왜 "뜬금(面目) 없이 와서 이래네 저러네 시비(是非)를 하시는 것이냐"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모르고, 그 극복을 향유할 줄 모르고, 탐욕과 갈등으로 분열된 사바의 중생들이 안타까워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오신(如來)" 비유로 하여,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보고, 그 빛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빛과 불은 그러나 그 분이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은 그것을 다만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었음(指示)"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주하는 곡은 태평가인데, 연주하는 피리에는 구멍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9. 그럼,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 있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 구질이 그 삶의 비결로 제시된 것입니다. "객이 오거든 꼭 내다보아야 한다. 그대도 보내서도 안 되고, 뒤따라가다간 맞는다." 저런,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이것을 오늘의 화두로 내 드리고, 사실을 그만 접기로 합니다. 꾸벅. ■한국의정당연구원

“우리가 남이가!”, 그不二의 법문



짓합니다. 야부가 말합니다. "둘로 부서지고 셋이 되는 것도 다 이것이 갈라진 결과이다. 천지가 갈라지기 전의 우주적 혼돈을 찾아라.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생의 공부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7. [時]라,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스스로의 연기(緣起)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찰나에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하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이쁘고 좋은 것만 선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제2장)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세상의 꽃과 달, 그리고 짐승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압니다. 그리하여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습니다.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이고, 거기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

주장사파라...

90 신행선사의 '심등(心燈)'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1-6: 1. 선사의 속성은 금씨 성덕왕3년(704) 2. 상근 벼슬에 오른 왕족의 아들 3. 그리고 4. 안흥대사(淨光)가 중증조부 5. 유학해서 벼슬길로 가려다 6. 30세에 출가

Comic strip panels 7-12: 7. 한바리때와 현누더기 한벌신사(?)로 2년간고행 정진 8. 하근 법랑선사의 물음에 9. 가네 우주의 법칙이 무엇인고? 10. 환하게 내 마음에 등불이켜졌다 11. 12. 심이런 바람앞에 촛불 죽음은 물 거품 아차자 내가 너무 늦었구나 부처의 지혜를 닦아 해탈을...

Comic strip panels 13-18: 13. 心燈 14. 환하게 내 마음에 등불이켜졌다 15. 16. 17. 18. 微言宏應 即心無心 부처의 미묘한 말씀 그음이 통하니 마음은 항상 있으면서도 마음이란 본래 없는것

Comic strip panels 19-24: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신행 스님(修行:704-779): 신라스님. 당의 지공(志空) 밑에서 3년간 수행. 귀국하여 북촌전을 선양.

네티즌 교리문답

“방편(方便)의 불교적 의미는?”

흔히들 방편이란 말을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떤 방편을 쓰면 좋을까” “학문을 출세의 방편으로 삼지 말라” 등처럼 수단이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즉 방편(方便)이란 단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쓰는 수단을 말합니다. 그럼 불교적 의미의 방편을 무슨 뜻입니까(수단면)

답1: 방편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의 방(方)은 방법(方法)이고 편(편)은 편리(便利)로서 사람의 근기를 말합니다. 또는 방은 '방정(方正)한 이치'를 말하고 편은 '편법(便法)'을 말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한디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편은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설법은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계되었다하여 방편시설(方便是說)이라 일컬었습니다. (방편시설)

답2: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에 대한 의미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방편은 '차별된 사상(事象)을 알고 중생을 제도하는 지혜로 구체하여 깨달음에 인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으로 설명된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방법이나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불교에서는 중생구제와 깨침을 얻기 위해 적절하게 설명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전이 진실한 의미에서 방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불교박사)

답3: 경전에서 방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암경)은 육바리밀의 방편과 대자대비(大慈大悲)방편, 그리고 각오(覺悟)방편, 전불퇴법(轉不退法輪)방편을 합친 십방편(十方便)을 제시했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열 가지의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편을 제시한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도 “방편으로서의 지혜가 없으면 속박 당하고 방편으로서의 지혜가 있으면 해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응당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방편의 의미가 아닌 중생이 깨침을 얻기 위한 의미로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경전읽기)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1.

상식퍼즐

- 1. 중국 본토의 북변, 몽골 지역과의 사이에 축조된 성벽 2. 서풍과 미숙한 무당 3.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비구(比丘)가 되기 전의 수행자 4. 무기를 가지 않고 맨손과 몸으로 상대방을 치고 막아내는 격투(格鬥) 기술 5. 선거인이 직접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 6. 증권거래소에서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올라간 주가.

- 1. 김시습이 지은 고대소설 <○○저포기> 7.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다는 맹자의 주장 8. 사마귀를 형상화해 고안한 무술법 9. 지위가 아주 낮은 관직 10.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률을 기초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 11. 거래규모와 외형이 큰 상인.